

## 꼭 찬 교회가 계속 차 있도록

유 해 무\*

### 1. 서론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상의 정립을 시도하려면, 먼저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10여년 전인 1983년에 한국교회는 매일 6개의 개척교회들이 세워진다고 세계교회에 자랑했으나,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 많은 개척교회들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러는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교회의 교회 출석률은 심각할 정도로 격감하고 있다. 특히 주일 오후 예배가 성행하면서 주일 오후 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의 참석률이 점차 떨어지더니, 이제는 주일 낮예배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제는

\* 고려신학대학(B.Th.), 고려신학대학원(M. Div.), 화란감편 개혁교회 신학대학원(Th.M.), 화란감편 개혁교회 신학대학원(Th.D.),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경제의 '거품경제'에 빚대어 한국교회의 '거품성장'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교회 내에 산재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성도들의 일상적 삶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기독교의 이름이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어도,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에 심취되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버릇을 갖게 되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자체가 진보가 아니라, 도리어 구속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원래의 신앙에서 떨어지는 타락의 역사였듯이, 10여년 앞에 대한 전망은 희망적일 수만은 없고 회개를 바라는 반성과 경고일 수도 있다.

우리는 먼저 한국교회의 실과 허를 살펴보고 나서 새로운 교회상의 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 2. 한국교회의 실과 허

한국교회의 실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지만 단적이고 포괄적으로 부흥과 성장이라고 할 때, 이의를 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부흥과 성장을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풍습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하나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는 못한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기독교 성장을 한국교회와 비교할 때 겪는 실수이기도 하다. 이는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쉽게 망각하고 빼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는 좋은 마음발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열심히 기

도하고 또 전도하는 열심도 주셨다. 왜 이런 마음을 다른 민족에게는 적게 주셨는지 우리는 해명할 도리가 없다. 또한 일제라는 이민족의 침입 아래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연단의 기회도 주시고, 한국동란을 통하여서 믿음을 사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주셨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한점 가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혜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인내와 연단을 거쳐 확고한 소망을 붙잡았다.

한국교회의 부흥 배경에는 매서인들의 활동이 기초가 되었고, 주로 농한기에 있었던 사경회와 수양회는 말씀을 듣기 위한 열성을 활성화했다. 매서인들의 일은 교인들에 의한 전도행위였다면, 사경회는 지역교회를 잘 섬기는 설교자들이 주도한 설교, 성경공부와 기도회였다. 네비우스 방법에도,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함으로써 각 신자가 앞으로 성경공부반을 전도하거나 도울 수 있게 하며, 모든 일을 성경 중심으로 하고 엄격한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전도와 생활화를 정착시키려 힘썼다. 1907년의 부흥운동도 말씀강론 중심의 성령의 역사라 할 때, 정확하고 건전한 평가가 될 것이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 비평에 감염되지 않았다. 1910년대에 일본 주재 한 선교사는 일본 교회는 고등비평을 채택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일이 있다. 현금 많은 외국 유학

파 한국 신학자들이 무분별하게 서구의 역사 비평에 입각한 학술, 저술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은 한국교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다. 텅 비어 예배드리고 있는 서구교회의 신학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는 마치 주일날 운동장을 뛰던 직업운동선수나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간증을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성장이라는 실(實)이 허(虛)라면 이 일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한국교회의 허를 우리는 개교회주의와 무속화로 요약하여 살피려고 한다.

개교회주의를 네비우스 방법의 자조, 자치, 자력전도 원리나 교회 분쟁 또는 교권주의에 대한 불신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하여도 이들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1950년대만 하여도 지역교회가 시찰회의 감독과 지원하에 전도소를 설치하여 교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이 60년대부터 한국교회의 대단위 숫적증가가 시작되어 70년대의 성장운동의 득세와 더불어 사라지기 시작했다. 조국 근대화와 시점을 같이 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생리가 성장과 개교회주의를 부채질했다고 여겨진다. 이전 질서는 폐기되고, 개교회 성장이라는 유일한 목적하에서 새로운 질서가 도입되었다. 장로교는 성장을 위한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회나 제직회의 역할을 약화시켰고, 교회 사업에 침묵하는 교인들을 양산했다. 이제 많은 교인들은 교회일에 무관심하게 되었

고, 이들의 관심과 열심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감리교도 성장을 위하여 감독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2년마다 감독에 의하여 파송되는 제도를 파기했다. 장로교의 감리교화, 감리교의 장로교화, 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에 자랑거리였던 대교회들은 현재 '지역 성전'을 여는데 급급하다. 이것은 마치 대기업이 지사를 내듯이, 슈퍼마켓이 체인점을 열듯이, 적자생존이나 우생학적 존속과 같은 생물학적 원리가 교회와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성장의 속셈이 이것이었는가?

성장과 더불어 한국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입하고 정착한 무속적 경향도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협하는 큰 적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나타난 사실이다. 불교가 국교일 때 불교는 왕조, 국가 및 사회를 위한 주술적 방벽으로 유명했고, 유교가 조선조의 통치 이념이었을 때, 조상숭배와 정령숭배는 여전하였고, 대중들은 원초적이고 주술적인 민속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로마 카톨릭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원초적인 주술적 세계상은 손상됨이 없이 계속 존속할 수 있었다. 개신교에도 역시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이고 탈속적인 종교 성향이 자리잡고 있다(차성환 「한국 종교사상의 사회학적 이해」 1992 참조).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국교회가 건전하게 지역교회 중심으로 부흥하고 성실한 지역교회 목사가 사경회를 주도하던 60년대 초에도

한국교회 내에 사머니즘적 경향은 있었으나 계속 견제되었다. 그러나 이런 이방적 경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공공연하게 행하여진 것은 성장운동과 함께이다. 이런 현상이 전에도 있어왔으나 성장과 부흥회의 성행과 함께 노골적으로 군림했다는 데에는 근거가 있다.

이방인 신자들의 경우 원래의 문화적 배경에 의한 태도가 발전 단계상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격적인 도전 자세이다. 이는 이방 문화와 종교에 대한 시위적 태도로써, 순교까지 자처하는 자세이다. 한국교회의 초기에 제시문제로 문중에서 파문당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도피이다. 세상에 대한 저항이 공격적이거나 도전적이지는 않으나 끈질기며 조직적으로 세상을 등지는 태도이다. 이는 일제 치하의 한국교회의 모습에 해당되며, 이 흔적이 아직도 신자의 대 사회적 태도에 깊이 잠재되어 있다.

셋째는, 이교적 문화와 사회에 대하여 타협적이고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는 단계이다. 기존 질서에 적응하고 동참하며, 사회적 공인을 받으려는 태도이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일부 신자들이 보여준 태도이다. 진일보하면 문화적 기독교로 자칭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지배 이념이나 세력으로 부상하려고 한다.

이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한국교회는 첫 단계에서 셋째 단계로 진전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민족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방사상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며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다. 우리는 타협의 시대가 1970년대의 성장 운동과 더불어 왔으며,

성장이라는 지상 목적을 위하여 무속적인 예배 행위와 신앙생활이 교회의 세례를 받고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의 한 예로 우리는 은사운동을 들고 싶다.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신유 등 은사가 일어났고 최권능, 길선주 목사 등도 은사를 행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직 말씀 전파라는 최고의 목적에 종속되었다. 은사 그 자체는 거부되지도 숭배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무절제한 은사 운동을 한국교회는 통제할 수 있었고, 때로는 불건전한 신비운동을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지녔었다. 그들은 신앙의 이름을 빙자하며 횡행하던 이방적인 신비운동이 교회 안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신앙의 이름으로 순결하게 보존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1세대들의 그런 당당한 태도와는 달리 3세대는 신앙이라는 미명하에서 이런 운동을 교회 안에서 조장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이를 교회 밖으로 추방할 힘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국교회는 성장을 위하여 너무 많은 신앙의 원리들을 포기했다. 교회는 많으나 사회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 왔으나, 사회도 동시에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때문에 교회의 문턱이 낮아짐과 동시에 사회와의 경계 또한 점차로 허물어지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성장이란 말인가?

### 3. 21세기 한국교회상 정립을 위한 제언

21세기에 매일 6개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려면, 한국교회는 권징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권징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말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교회에서는 권징을 사후에 내리는 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권징은 교인을 살피는 처리의 한 부분이며, 사전에 살피는 일이기도 하다. 개혁자들은 교인들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교인들을 미리 살폈다.

한국교회는 애석하게도 성례를 경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성인세례가 더 중시되고 유아세례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로교회 안에 들어온 침례교적 영향이다. 성인 세례를 집례하기 전에 1년 이상 성령의 진리를 가르치던 고대교회의 미풍은 한국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유아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부모의 신앙과 삶을 살피는 풍속도 사라져가고 있다. 자녀를 성경으로 부모가 스스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도록 하겠느냐는 질문에 담은 하나, 학교 교육 지상주의로 인하여 각 교회의 주일학교와 교육기관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그런 부모를 사전이나 사후에 권징하는 교회는 없다.

숫적성장을 위하여 한국교회는 성경에 기초되었든 안 되었든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면서도 주님이 직접 제정하여 주신 성찬은 경홀히 여긴다. 성찬에 참여함이 완전한 성도됨의 축복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살필 수가 없다면 교회를 분립해야 한다. 세례의식이 주의 몸에 접붙혀지는 예식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예식이다. 세례를 받도록 성

실하게 지도도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시행하다 보니 명목상의 신자들이 양산되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신자의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 신자 아닌 신자들을 채움으로 거품성장을 했고, 이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을 때 교회는 비어간다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권징과 성례가 바로 시행되지 않았고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과 말씀이 바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설교는 특히 최근 20여년 동안 성공과 축복을 안겨주는 주술적 수단으로 행하여졌다. 건전한 사경회 강사가 아닌 직업적인 부흥사들이 건실한 지역교회의 성장을 훼방했다. 언제부터인가 신학교에서 배운대로 하면 반드시 목회에 실패하고 만다는 통설이 회자하기 시작했다. 현장을 무시한 신학교육은 결과적으로 성경말씀에 무지한 목사들을 배출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모든 인간적 예식들을 폐지하고 설교 하나에 생명을 걸었던 종교개혁의 교회에 말씀이 약화되니까 목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신학교육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신학교는 져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책들과 컴퓨터로 무장한 현대 설교자들의 설교가 무력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 옛날 성경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도 선배 목사들은 교인들을 감화시켰고, 교회를 바르게 인도했었다. 현대의 목사들은 성경 이외의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기도로써 말씀의 깨달음과 잘 설교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목사가 얼마나 되는가?

역으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지 않는 것은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는 또한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진실되게 설교되면 자연인을 완전하게 벗은 교인들이 성례에 참여하게 될 것이요,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권징도 신실하게 시행되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무슨 시험이 와도 그 교회는 요동함이 없이 굳건할 것이며 거품경제의 실상과 같은 거품성장도 없게 될 것이다.

#### 4. 결론

역설적으로 권징만 바로 시행되면,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주일 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석 교인이 주일 낮예배 교인의 숫자와 똑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언약의 터전인 가정이 완전하게 복음화되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한 한국교회의 10년 뒤는 큰 위기를 당할 것이다.

영국 성공회 신부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려고 한다. 그린(Canon Bryan Green)은 기술영역에서는 미국이 앞서나, 종교적으로는 영국이 앞선다면서 경고했다.

“50년 전의 영국교회는 지금의 미국교회들처럼 꼭 찼었다. …미국교회는 현재 사람들로 차고넘치나, 교인들의 성경지식이나 영적 깊이는 천박하다. 종교란 대개 감정적인 일요일 행사일뿐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부터 50년 뒤에는 미국교회도 지금의 우리 영국교회처럼 비고 말 것이다. 내가 미국 목사라면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눈을 돌리기 보다는 내 모든 시간을 바쳐 이미 교회 회원들인 자들을 회개케 하고 영적 깊이를 더 하게 하겠다.”

한국교회는 영국교회나 미국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목사가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꼭 차는 축복을 계속 주실 것이다.

## 한국교회의 성장에 관한 개혁신학적 고찰

-성장둔화에 대한 요인분석과 내실적 성장을 위한 소고-

김 영 한\*

### 1. 서론

최근 ‘한국교회 성장의 둔화’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실로 이제는 개척교회 하기가 어렵고 기존교회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해방 이후 매 10년마다 배로 증가하여 지금까지 교회사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한국교회 성장이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의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

\* 서울대학교(BA),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Ph.D.), 독일 마이부르그 대학 수학,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신학박사(Th.D.), 숭실대학교 교수 및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장(현)